

사우나·고시학원서도 확진...소규모 집단감염 확산

광주 새 감염원 잇따라 발생...방역 당국 촉각
다솜어린이집·일동초교 교직원 전원 음성 안도
2차유행 이후 첫 퇴원 환자...방역수칙 준수 절실

▶코로나19 관련기사 3·6면

광주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로운 감염경로가 추가 확인돼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최근 발생한 오피스텔, 사찰, 교회, 복지시설, 병원 등 접촉자 파악이 당국의 관리 범위에 들어온 상황에서 새 감염원이 생기면 당분간 확산 차단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나날이 개인방역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동일생활권인 전남에서도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면서 방역당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날 확진자 6명 가운데 3명이 특정 사우나에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로 밝혀졌다. 이들은 광주 57번 접촉자들로 코로나19 검사를 통해 양성판정을 받았으며, 사우나 영업은 지난 1일부터 중단됐다.

광주 확진자와 사우나에서 접촉한 나주시에 거주하는 전남 26번 확진자까지 더하면 모두 4명으로 늘어났다.

시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달 23

일부터 7월6일까지 SM사우나 방문자에게 검사를 받도록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방문자들은 신장동 행정복지센터 현장 이동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신속대응반은 소규모 감염경로로 주목해 현장 확인 및 위험도 평가에 돌입했다.

당국은 광주117번이 다니던 광주고시학원도 감염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117번 확진자는 그동안 발생했던 오피스텔과 교회와 연결고리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특히, 전남 29번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해당 고시학원 건물은 폐쇄됐고, 방역소독에 이어 위험도 평가가 진행중이다. 이 환자는 목포 거주자로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이 고시학원에서 수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98명의 고시원 명단을 확보해 코로나19 검사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확진자 이동 동선 및 감염원 추적이 나섰다. 전남지역 수강생은 나주2, 영암 2명, 화순 1명, 담양1 등 7명이다.

이와 함께 당국은 6일 밤 확진된 4명(광주 118-121) 모두 잠시 주춤했던 광



분주한 자가격리자 관리센터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접촉자 및 동선 자가격리자 관리에도 비상이 걸린 가운데 7일 오전 광주 북구청이 청사 대회의실에 '자가격리자 관리센터'를 마련, 담당 직원들이 전화로 격리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는 등 특별 방역관리에 나서고 있다.

주사랑교회 관련자들이어서 추가 감염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광주 북구 일곡중앙교회 집단감염의

여파도 전남으로 번질 기세다. 이른바 일곡중앙교회 수퍼전파자는 장성에 거주하며 일곡중앙교회에 다닌 60대 여성(광주 92번 확진자)으로 압축되고 있다.

이 여성은 지난달 27일 교회 행사 관련

해 교회 내 식당에서 식사 준비를 했고 28일 일요예배와 모임에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광주 113·114번째 확진자인 미취학아동 남매가 다니던 동구 산수동 다솜어린이집 교직원 18명, 원생 53명을 포함해 접촉자 222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결과에서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아 안도하는 모습이다.

광주 107번째 확진자가 재확증인 북구 일동초등학교 급우, 교사 등 40명도 모두 음성이었다. 특히, 소규모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2차 유행 국면에서 광주 56번이 격리 해제되는 등 첫 퇴원 환자도 나왔다.

이용섭 시장은 "최근 10일 동안 확진자들의 감염경로를 보면 가족과 직장 동료 간 일상접촉을 통한 감염은 물론 교회와 요양원 등 밀폐·밀접·밀집 등 '3밀 조건'이 갖춰진 실내감염이 훨씬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내가 만나고 접촉하는 모든 것이 나에게 코로나19를 감염시킬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불요불급한 외출과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달 27일부터 발생한 광주 코로나19 확진자는 금양오피스텔 관련 30명, 광주사랑교회 관련 29명, 일곡중앙교회 16명, 기타 4명 등 89명(오후6시 기준)으로 누적 확진 122명이다.

/김대이기자

청년 떠나는 광주·전남, 年 1천억-2천억대 순유출

양질의 일자리·고용구조 개선 필요성 제기

광주·전남 청년인력 유출이 확대되고 있다. 지역경제에 광주 2천억원대, 전남 1천억원대 순유출 효과가 생긴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광주전남연구원 임형섭 선임연구위원은 광주전남정책Brief에 실린 '청년인력 유출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청년의 지역 외 유출의 직접적인 영향을 분석했다.

임 위원은 2019년 기준 광주는 청년층 유출률이 21.9%로 특·광역시 중 2위, 전남은 22.1%로 도 지역 중 2위로 높다고 소개하고, 광주의 경우 청년인력의 순유

출(유출-유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종합효과는 2014년 1천127억원, 2016년 2천969억원, 2018년 2천150억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매년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0.5-0.8% 수준이다.

전남은 2014년 1천476억원, 2016년 993억원, 2018년 1천117억원으로 산출됐다. GRDP 대비 0.1-0.2% 정도다. 광주와 전남 청년 유출규모는 지역 청년의 역외 유출의 심각성과 청년층 지역 정착의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임 위원은 설명했다.

종합 효과는 대졸자를 중심으로 소비, 생산, 외부 효과 등 3가지 측면을 고려해 추정했다.

임 위원은 광주와 전남에 남아있는 청년 비율은 큰 폭의 감소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광주지역 대졸자가 지역 내 취업하는 경우는 51.3%로, 절반이 타 지역으로 일자리를 위해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대졸자의 잔존율은 36.8%로 대졸자의 2/3 정도가 타 지역에 취업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전남 청년 5명 가운데 1명 꼴로 지역 대졸자의 수도권 유출도 심각한 상황이다.

임 위원은 청년인력의 유출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의 좋은 일자리

를 확대하는 양적인 차원의 접근과 지역 청년 고용 구조를 개선하는 질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위원은 "지역 간 산업구조의 차이, 취업 기회의 차이, 고등교육기관의 불균형 등으로 지역의 우수 인력과 청년층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며 "지역 경제 및 인구문제라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청년인력에 적합한 좋은 일터와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임재만기자

'단체장에게 듣는다'...송귀근 고흥군수 ▶5면

李시장 “행정명령 안 지키면 일벌백계”

“시민안전위해 무관용 원칙”

광주시가 코로나19 지역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 행정명령 불이행 시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

이용섭 시장은 7일 재난대책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각 부서와 구청에서는 행정명령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불이행 정도가 심한 곳은 바로바로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그간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여러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이는 죽은 행정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없다”며 “150만 시민들과 광주공동체를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 지금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행정명령은 실내 50인 이상과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실내 50인 미만과 실외 100인 미만 행사의 경우 출입자 명부작성 등 방역수칙 준수,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 유흥업소 등 고위험 시설의 운영자제 및 방역수칙 준수, 노인요양시설 2주간 면회와 종사자들의 외부인 접촉 금지, 방문판매업체 집합 금지 등이다.

이 시장은 또 “코로나19의 최고 백신은 시민들의 경각심과 위기의식이며, 최대의 적은 방심”이라며 “지역확산 방지업무는 방역당국이나 특정부서만의 일이 아니다. 분청과 구청 모든 부서, 모든 직원들이 역할을 찾아 힘을 모아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종민기자

에너지바우처

에너지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광주매일신문 에너지 절약 실천 연중캠페인

신청 및 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2020년 5월 27일~12월 31일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신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정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있는 가구

사용안내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020년 7월 1일 ~ 2020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020년 10월 14일 ~ 2021년 4월 30일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바우처 금액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人以上가구
여름	7,000원	10,000원	15,000원
겨울	88,000원	124,000원	152,000원
총 지원금액	95,000원	134,000원	167,000원

여름을 시원하게 겨울을 따뜻하게!

☎ 콜센터 1600-3190 홈페이지 www.energyv.or.kr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